

한-케냐 인프라 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1월 1~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출처:trading economics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USD)	129	129	2025.10월
인플레이션(%)	4.6	4.6	2025.10월
CPI(points)	147	147	2025.10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65.5	72	2024.12월

○ 왜 IMF는 케냐의 구제금융을 보류하고 있는가: 통화 안정성, 부채 전략, 개혁 신뢰성¹⁾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케냐의 통화 관리, 부채 전략 및 개혁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케냐와의 신규 자금 지원 협정 체결을 보류함.
- 협상은 IMF 관계자들이 케냐 실링화가 “지나치게 안정적”일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단되었음.
- 케냐의 이전 프로그램 후속 지원 요청은 공공부채 부담이 증가(KES 11조 이상)하고 이전 IMF 협정에서 최종 검토가 누락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, 이로 인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음.
- 이번 지연으로 케냐 정부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, 구제금융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 IMF는 어떠한 협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개혁 이행과 강력한 거버넌스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.

1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32733/why-imf-has-delayed-kenyas-bailout#google_vignette

○ 루토 대통령의 국부펀드 계획 검토: 거버넌스 공백과 부채 상황이 위험을 부각²⁾

- 윌리엄 루토 정부가 추진 중인 케냐 국부펀드(Kenya Sovereign Wealth Fund, SWF) 및 인프라펀드(Infrastructure Fund) 설립을 위한 정부 초안 법안이 거버넌스 구조와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.
-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불명확한 운영 규정, 정의되지 않은 저축 목표 (예: 법안에 “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 10% 저축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함), 국내총생산(GDP) 기준치의 모호한 정의, 그리고 행정부에 부여된 광범위한 자금 인출 권한 등이 포함됨.
- 제안된 이사회 구성안은 임명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장관에게 집중시키고 있어, 비평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펀드의 정치화 및 독립적 감독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.
- 이러한 논의는 케냐가 이미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 압박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국부펀드 설립을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한지, 혹은 해당 재원을 부채 감축이나 긴급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
○ 케냐의 부채 상황, 세수의 92% 소모로 개발 여력 최소화³⁾

- 케냐는 7월~9월 기간 동안 KES 5,096억을 부채 상환에 사용했으며, 같은 기간 세수는 KES 5,537억에 불과함. 이는 세금으로 걷은 KES 1당 92센트가 공공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함.
- 정부 운영을 위해 남은 금액은 약 KES 439억에 불과하여, 급여, 의약품, 인프라, 청년 고용 등 지출이 극히 제한되었음.
- 부채 상환 비용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였으며, 세수는 2019년 이후 약 49% 증가한 반면, 같은 기간 부채 상환액은 KES 2,148억에서 KES 5,096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.
- 세수의 높은 비중이 부채 상환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은 재정 여력, 개발 지출 및 부채 지속가능성 경로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2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financial-standard/article/20153799/rutos-sovereign-fund-plan-draws-scrutiny-over-governance-gaps#google_vignette

3) 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debt-repayments-gobble-up-92pc-of-tax-collections-5249682/#google_vignette

○ AU 보고서, 케냐 경제 취약성 지적 – 원자재 수출 의존 과다로 탄자니아 대비 성장 둔화⁴⁾

- 2025년 아프리카연합(AU) 대륙 통합 보고서에 따르면, 케냐 경제는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다각화가 제한적이어서 탄자니아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줌.
- 케냐 경제는 제조업 역량 취약, 일자리 창출 부족으로 빈곤과 실업이 심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구조로 평가됨.
- 동아프리카공동체(EAC)의 무역 다각화 점수는 0.3920으로 대륙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, 탄자니아가 지역을 선도하는 반면 케냐는 부룬디보다도 뒤처져 있음.
- 보고서는 농산물 가공 및 경공업에서 지역 가치사슬 강화, 교통 회랑 개선, 역내 무역 통합을 통해 수출입 격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○ 케냐, 새로운 IMF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입장 미정 – 시장기반 자금조달과 다자간 차입 사이 검토 중⁵⁾

- 케냐는 국제통화기금(IMF)과 기술적 협의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, 새로운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.
- 정부 관계자들은 전면적 IMF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며,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케냐가 다자간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시장기반 자금조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.
- 전문가들은 IMF 협정이 대외 신뢰를 강화하고 다른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, 일부는 케냐가 2027년 및 2028년외부 차입 압력이 커질 때까지 지연할 수 있다고 봄.
- 이러한 논의는 케냐가 중상위 소득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IMF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갖는 동시에, 단기적인 대외자금 조달 수요와 부채 상환 의무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반영함.

4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0-28-kenyas-economy-lagging-behind-tanzania-au-report-shows>

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undecided-on-need-to-enter-new-imf-deal-5251914>

- 케냐 재무부, 케냐 실링화 저평가 인정 – IMF, 환율 유연성 문제 경고⁶⁾
 - 케냐 재무부(National Treasury of Kenya)는 케냐 실링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“저평가”되어 있으며, 자유변동환율제 환경에서는 1달러당 약 KES 118 수준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.
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케냐 실링화의 좁은 거래 범위(달러당 약 KES 129.22~129.24)로 환율 유연성이 제한되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음.
 - 재무부 관계자들은 수출 수입, 해외송금, 약 121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거시경제 기초여건이 케냐 실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, 시장개입적 정책이 통화 강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.
 - 이러한 환율 관련 논란은 케냐가 IMF와 새로운 프로그램 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제기된 것으로, IMF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관리되거나 인위적으로 억제되지 않고, 환율이 충격 흡수장치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함.
- 음바디, 케냐 경제개혁 및 BETA 아젠다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자금 신속 집행 촉구⁷⁾
 - 재무부 장관 존 음바디(John Mbadi)는 케냐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은행(World Bank)이 개발 자금 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음.
 - 음바디 장관은 세계은행 총괄이사 앤 비에르데(Anne Bjerde)와의 회의에서 케냐의 상향식 경제변혁 의제(BETA), 신중한 재정 정책,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음.
 - 세계은행은 최근 케냐 도시교통 개선, 도로 및 농촌 경제 개발, 빅토리아 호수 유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KES 11.6억 규모의 사업 준비 자금을 승인했음.
 - 또한, 음바디 장관은 케냐가 세계은행과의 호스트 국가 협정(Host Country Agreement)을 최종화하고, 전자 정부 서명 규정을 업데이트하여

6) 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treasury-reveals-shilling-undervaluation-amid-imf-concern-5253494#google_vignette

7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mbadi-seeks-faster-world-bank-support/>

효율성, 투명성, 사업 집행 속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.

② PPP 관련 동향

○ 나이로비 - 나쿠루 - 마우 서밋 톨게이트 도로 PPP, 계약업체 30년간 KES 3,398억 수익 예상⁸⁾

- 업그레이드된 나이로비 - 나쿠루 - 마우 서밋 고속도로 톨게이트 도로의 선정된 계약업체는 30년 수익권 기간 동안 약 KES 3,398억(USD 26.3억)의 운영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.
- 수익 모델은 총 수익 약 USD 48.8억(KES 6,303억)에 대해 비용 USD 22.5억(KES 2,905억)을 투입, 연간 세전 잉여금 약 KES 113억을 산출함.
- 사업 구조는 설계-시공-재원조달-운영-유지관리-이관(DBFOMT, Design-Build-Finance-Operate-Maintain-Transfer) PPP 방식으로, 교통량·수요 등 주요 위험을 계약업체가 부담하며, 승용차 기준 1년차 톨 요금은 1km당 KES 8, 연 1% 인상 조항이 적용됨.
- 사업의 주요 실행 조건으로는 정부의 지원 약속(통행권 인도, 공공 시설 이전, 환경 보호 조치, 톨로드 공식 고시)과 약 75% 부채, 25% 자본(KES 1,440억 부채, KES 480억 자본)의 자금 조달 구조가 포함됨.

○ 케냐, 취소된 KES 950억 규모 전력 송전 PPP에 대해 아다니 그룹(Adani Group)과 보상 협상 진행⁹⁾

- 케냐 정부는 인도 아다니 그룹과 약 KES 950억 규모의 전력 송전 사업 취소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상 중임.
- 해당 거래는 케냐 국영 전력 송전회사(KETRACO)와 30년간 공공-민간 협력(PPP) 방식으로 고압 송전선 및 변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으나, 법적·재정적 우려로 인해 중단되었음.
-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보상 규모와 케냐 공공재정에 대한 위험 노출이 논의되며, 대규모 인프라 사업 위탁의 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- 이번 사례는 케냐가 대규모 PPP 구조화에서 직면하는 보다 광범위한

8) 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mau-summit-toll-road-contractor-set-to-earn-sh339-8bn-in-30-years-5246122#google_vignette

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in-talks-to-pay-adani-over-cancelled-electricity-deal-5242636>

과제를 보여주며, 인프라 투자에서 투명성, 실사, 효과적인 계약 종료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.

○ 루토 대통령, 나이로비 - 나쿠루 - 마우 서밋 고속도로 서부 연장 PPP 모델 발표, 지역 연결성 강화 목표¹⁰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- 나쿠루 - 마우 서밋 고속도로 (Nairobi - Nakuru - Mau Summit Highway) 확장이 케리초(Kericho), 키수무(Kisumu), 엘도렛(Eldoret), 말라바(Malaba) 국경까지 추가 연장되어 서부 케냐를 국가 도로망에 연결할 것이라고 발표함.
-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도로교량공사 (CRBC)와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이 참여하는 공공-민간 협력(PPP) 모델로 추진됨.
- 루토 대통령은 PPP 모델과 제안된 인프라 채권법(Infrastructure Bond law)이 국가 예산에 과도한 부담 없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함.
- 케냐 국도청(KeNHA)이 총 230 km 사업을 감독하며, 교통 혼잡 완화, 화물 이동 개선, 나이로비 - 나쿠루 - 말라바 구간 연결성 향상을 목표로 함.

○ 루토 대통령, KES 1.5조 규모 국가 인프라펀드 출범 - PPP 및 자본시장 활용해 10,000km 도로 건설¹¹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케냐 전역에 10,000km 규모의 신규 포장도로를 건설하여 경제 성장과 농촌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KES 1.5 조를 동원할 계획을 발표했음.
- 정부는 국가인프라펀드(National Infrastructure Fund)를 설립하여, 국가 예산, 민영화 수익, 자본시장, 공공-민간 협력(PPP) 등 다양한 재원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.
- 루토 대통령은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공공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“틀을 벗어난 사고”의

10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0-27-ruto-expansion-of-mau-summit-rd-to-extend-to-malaba>

11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0-27-ruto-unveils-plan-to-raise-sh15trn-for-10000km-of-new-roads>

필요성을 강조했음.

- 본 펀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, 케냐 국도청(KeNHA), 케냐 도로청(KeRRA), 케냐 도시도로청(KURA)이 진행 중인 기존 프로젝트를 보완하여, 농촌 및 지역 접근성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.

○ KES 11억 초과 지급 논란 – 마우 서밋(Mau Summit) 톨 로드 계약 프랑스 계약자에 대한 지급액 불일치¹²⁾

- 케냐가 나이로비 - 나쿠루 - 마우 서밋 톨 로드(Nairobi-Nakuru-Mau Summit Toll Road) 계약을 취소한 후, 프랑스 계약자 컨소시엄에 지급된 보상액을 기록한 두 공식 국가 문서에서 상이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음. 한 문서에는 KES 73.15억, 다른 문서에는 KES 62억으로 기재됨.
- KES 11억의 불일치는 통합기금에서 지급되었고, 예산감독관실의 승인이 필요했으며, 예산감독관은 낮은 금액에 서명했다고 밝혔음.
- 재무부(Treasury)와 공공-민간 협력국(Public Private Partnerships Directorate)은 차이를 환율 변동과 세금 균등화로 설명하지만, 민간 컨소시엄 세부사항과 세금 균등화 방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음.
- 이번 사례는 대규모 인프라 PPP 계약 종료 시, 특히 계약이 취소되고 보상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지급액과 근거에 대한 자료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투명성 위험을 보여줌.

○ 케냐 최초 PPP 송전선 개발사업, AfDB·TDB·FMO로부터 KES 340억 차입 요청¹³⁾

- 케냐 최초의 공공-민간 협력(PPP) 송전선 사업 개발업체가 아프리카 개발은행(AfDB), 무역개발은행(TDB), FMO 기업개발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 최대 KES 340억의 차입을 요청했음.
- 총 사업비는 USD 3.41억 (≈KES 440.5억)으로 추정되며, 서부 케냐의 두 개 송전선과 변전소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로, Africa50와 인도 전력망공사(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)로 구성된 자본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됨.

1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mysterious-extra-sh1-1bn-in-state-pay-to-french-builders-5246136>

1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developers-of-kenya-s-first-ppp-power-lines-seek-sh34bn-5250062>

- 예상 부채·자본 구조는 77:23으로, Africa50이 총 지분의 60%(≈KES 60.8억)를 제공하고, 인도 기업이 나머지 40%를 공급함.
- 소비자 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특별 요금을 통해 금융기관과 개발자가 30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, 케냐가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PPP 방식으로 금융 조달하는 구조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나타냄.

○ 케냐 국도청(KeNHA), 리로니 - 마우 서밋 고속도로 재개발 PPP 에서 투명한 통행료 및 책임성 확보¹⁴⁾

- 케냐 국도청(KeNHA)은 핵심 공공-민간 협력(PPP) 사업인 리로니 - 나쿠루 - 마우 서밋 고속도로(Rironi-Nakuru-Mau Summit Expressway)에서 투명성, 공정성, 적정 요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, 운전자들을 위한 비통행료 대체 경로도 마련할 계획임.
- 통행료 체계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국가 통행료 정책과 규제된 요금 체계에 따라 수익권 기간 동안 공공책임성과 요금 합리성을 확보함.
- 본 프로젝트는 리로니 - 나쿠루 - 마우 서밋(A8) 175 km와 리로니 - 마아이마히우 - 나이바샤(A8 South) 58 km 구간을 포함하며, 몸바사에서 우간다 및 기타 동아프리카공동체(EAC) 국가로 연결되는 북부 회랑의 핵심 구간을 형성함.
- 2025년 5월 Rift Valley Highway Ltd와의 이전 PPP 계약 종료 후, KeNHA는 중국 도로교량공사(CRBC) -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, 현재 PPP 법 및 재무부 공시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.

○ 케냐전력공사(KenGen)와 중국 Kaishan 그룹, KES 1,032억 규모 지열 기반 비료 공장 착공 - 케냐 그린 산업혁명 추진¹⁵⁾

- 케냐전력공사(KenGen)와 중국 Kaishan Engineering Group Limited는 올카리아, 나이바샤(Olkaria, Naivasha)에 KES 1,032억 (USD 8억) 규모의 지열 기반 친환경 비료 공장을 착공했으며, 이는

14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11/kenha-pledges-transparent-tolling-alternative-routes-on-rironi-mau-summit-expressway/>

15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kengenchinese-in-ksh-103bn-fertilizer-plant/>

세계 최초이자 아프리카 최초의 지열 기반 비료 단지임.

- 본 프로젝트는 KenGen의 165MW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연간 20~3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며, 케냐의 비료 수입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연간 60만 톤 이상의 CO₂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됨.
- Kaishan Terra Green Ammonia Limited가 운영하며, KenGen에 연간 USD 1,300만의 순이익을 창출하고, 2,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며, 국가 식량 안보 및 청정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 프로젝트는 COP28에서 출범한 아프리카 녹색 산업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, 케냐를 재생에너지와 산업 생산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분야의 대륙 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함.

○ 리로니 - 마우 서밋 고속도로 확장,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¹⁶⁾

- 리로니 - 나쿠루 - 마우 서밋 고속도로(Rironi - Mau Summit Highway) 업그레이드 사업은 재원 구조 미확정과 이전 PPP 계약 종료로 인해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.
- 주요 구간에서 토지 확보 및 통행권 문제로 일부 계약업체는 부지 접근이 불확실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- 정부의 신규 컨소시엄 선정 및 조건 재협상 결정으로, 사업비 증가와 착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이해관계자들은 도로가 북부 회랑 혼잡 완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도, 이러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2027년 완공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중국 기업, 키암부 채석장 사업 환경권 소송으로 일시 중단¹⁷⁾

- 케냐 법원은 키암부(Kiambu) 카운티 킬리맘보고(Kilimambogo)에서 Sinohydro Corporation Limited와 현지 파트너 Vallem Construction Limited의 모든 채석 및 광산 작업을 환경 문제와 깨끗한 환경에 대한

16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counties/rironi-mau-summit-highway-upgrade-5253922>

17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china-firm-s-kiambu-quarry-works-blocked-5248808>

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음.

- 지역 비즈니스 윤리·연구센터(Regional Centre for Business Ethics & Research)가 제기한 소송은 카운티가 환경영향평가(EIA)를 공표 및 적절한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석 허가를 발급했으며, 소음·먼지·수질 오염이 지역 주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.
- 피고 측은 소송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모든 발파, 분쇄 및 굴착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받았으며, 이는 케냐에서 외국 주도 채굴·채석 활동에 대한 규제 및 사법적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.
- 이번 판결은 헌법상 환경권(제 42조)과 사법적 접근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, 투자자들에게 규제 준수 및 지역사회 관계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경고함.

○ 루토 대통령, BETA 하에 382세대 규모 마리가트 공공주택 프로젝트 착공 — 지역 성장 및 포용적 개발 촉진¹⁸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바링고(Baringo) 카운티에서 382세대 규모의 마리가트(Marigat) 공공 저가주택 프로젝트를 착공하며, 상향식 경제변혁 의제(BETA) 하의 공정한 국가 발전을 강조했다.
- 대통령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변혁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, 어떤 지역도 기회와 필수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루토 대통령은 공공주택 사업을 일자리 창출, 산업 성장, 지역 도시화를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며, 주택 정책을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음.
- 본 프로젝트는 마리가트 타운(Marigat Town)의 위상 제고와 인프라 및 사회개발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공유 번영을 목표로 함.

○ 아프리카 USD 4조 규모 인프라 계획, 국내 자본 묶임에 난항¹⁹⁾

-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, 아프리카는 연금, 보험, 공공은행, 국부펀드 등을 포함해 USD 4조 이상의 국내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나, 이 자원이

1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10-28-photos-ruto-breaks-ground-for-marigat-affordable-housing-project>

19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africa-s-4trn-infrastructure-dream-faces-tough-realities-5243038>

인프라 투자로 효과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.

- 보고서는 얇고 단편화된 자본시장, 약한 금융 중개 기능, 인프라 프로젝트의 제한된 투자 준비도 등을 내부 저축 동원의 주요 병목으로 지적하였음.
- 글로벌 경제 역풍 속에서 외부 자원(개발원조, 해외 직접투자(FDI), 국채 차입)이 감소하고 있어, 아프리카가 국내 자원 동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됨.
- 연구는 자본을 활용하고 산업화 및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, 규제 조화, 국경 간 시장 통합, 수익성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등 제도적 개혁을 권고하고 있음.

○ 기타루(Gitaru) 연계도로 건설, 토지 소유주 접근권 문제로 법원 일시 중단²⁰⁾

- 키암부 카운티(Kiambu County)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청원에 따라 기타루(Gitaru)의 주요 도로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음. 청원인들은 굴착 및 도로 고도 조정 작업으로 인해 토지가 새 도로보다 수 미터 높게 위치하게 되어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.
- 분쟁 대상 도로는 나쿠루 - 나이로비(Nakuru-Nairobi) 고속도로와 서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연계도로로, 교통 혼잡 완화 및 연결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나,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영향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음.
- 청원인들은 케냐 국도청(KeNHA)이 충분한 협의 없이 대규모 굴착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, 접근권 보장 및 적절한 보상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.
- 이번 일시 중단은 프로젝트 일정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며, 인프라 사업에서 초기 이해관계자 협의, 보상, 토지 접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.

○ 현실 점검: 루토 대통령의 공공주택 비전의 성과와 과제²¹⁾

20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court-temporarily-halts-construction-of-key-road-in-gitaru-kiambu-county-5252566#story>

21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success-hurdles-in-ruto-affordable-housing-dream-5250536#story>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공공 저가주택 프로그램(AHP)은 연간 25만 세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수천 세대가 완공되거나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진척이 늦고 재원 부족문제가 지속되고 있음.
- 필수 급여 1.5% 부담금에 의존하는 재원 조달 모델은 2025년 6월 기준 KES 732억을 징수했지만, 연간 추정 필요액 KES 4,000억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약 KES 3,260억의 큰 재원 부족이 발생함.
- 프로그램은 33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으나,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건설업 부문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, 주택사업의 경제적 효과 달성 여부와 성과 측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됨.
-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주택 관련 기관의 낮은 예산 집행률(2025년 중반 기준 목표 세대 대비 13% 완공), 조달 지연, 그리고 주택 건설이 아닌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된 부담금 등이 있음.

④ 정치 동향

- **기디언 모이 거래 이후 바링고 카운티 다수의 수십억 실링 투자 추진²²⁾**
 - 기디언 모이(Gideon Moi) 관련 거래 이후, 바링고 카운티(Baringo County)는 지역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다수의 수십억 실링 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음.
 - 해당 프로젝트들은 인프라, 서비스 제공, 투자 유치 분야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, 이는 국가 개발 계획 내에서 카운티의 우선순위를 보여줌.
 - 이번 발표는 정치적 연계와 거래가 지역 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.
 - 한편, 이 거래는 책임성,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역 역량, 거래 구조의 투명성 등과 관련된 잠재적 의문을 제기함.
- **루토 대통령, 리로니 - 나쿠루 - 마우 서밋 2차선 도로 확장사업 2027년 완공 목표 발표 — 대규모 교통용량 반영²³⁾**
 - 리로니 - 나쿠루 - 마우 서밋(Rironi-Nakuru-Mau Summit) 도로는 대통령

22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counties/baringo/baringo-set-for-multi-billion-shilling-projects-after-gideon-moi-deal-5248864>

23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rift-valley/article/200153288/rironi-mau-summit-dual-carriageway-to-be-ready-in-2027-says-ruto#google.vignette>

윌리엄 루토(William Ruto) 개입으로 향후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재설계되어, 리로니 - 나이바샤(Rironi - Naivasha) 구간 4차선, 나이바샤 - 나쿠루(Naivasha - Nakuru) 구간 6차선으로 확장되었음.

- 본 사업은 공공-민간 협력(PPP) 모델로 진행되며, 중국 도로교량공사(CRBC)와 케냐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이 투자 구조를 제공함.
- 루토 대통령은 2027년까지 2차선 도로 확장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며, 향후 확장은 마우 서밋(Mau Summit) 이후 케리초(Kericho), 키수무(Kisumu), 엘도렛(Eldoret), 말라바(Malaba) 국경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음.
- 정부는 본 사업을 전국 1,000 km 2차선 도로 업그레이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, 재원 조달을 위해 인프라 채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음.

○ 국회의원들, 루토 대통령 KES 1.5조 국가인프라펀드 우려 제기 – 세금 부담 및 거버넌스 공백 지적²⁴⁾

- 일부 국회의원(MPs)은 루토 대통령의 KES 1.5조 규모 국가 인프라펀드 (Infrastructure Fund) 제안에 대해, 이미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케냐 국민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음.
- 의원들은 케냐의 문제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공공재정 투명성 및 청렴성 부족이라며, 새로운 기금을 도입하기 전에 낭비와 부패를 먼저 근절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음.
- 이들은 해당 펀드가 적절히 구조화되지 않으면 부실 관리나 부패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, 과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과도한 계약 금액과 불명확한 감독체제로 가치가 손실된 사례를 언급했음.
-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, 보건, 교육 등 우선 순위 조정과 강력한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며, 법제화 이전에 충분한 감독 장치 마련을 촉구했음.

○ 루토 대통령, 서부 케냐 개발사업에 KES 460억 지원 약속 – 4일간 순회 일정 중²⁵⁾

24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mps-our-beef-with-ruto-s-infrastructure-fund-5249266>

25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western/article/200153391/sh46-billion-development-pledge-inside-rutos-four-day-western-tour#google_vignette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서부 케냐 4일간 개발 순회 중, 인프라, 주택, 보건,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다분문 카운티 프로젝트에 KES 46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.
- 구체적 핵심 약속으로는 공공 저가 주택 공급, 가정용 전력 연결, 도로망 확장 등이 포함되며, 이는 정부의 지역 포용성 및 경제적 형평성 강화 의지를 보여줌.
- 대통령은 이번 순회에서 “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다(No region left behind)”는 행정 아젠다를 강조하며, 이러한 약속을 상향식 경제변혁 의제(BETA)와 제안된 국가 인프라펀드 등 국가 전략과 연계했음.
- 발표는 환영받았으나, 지역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은 과거 다수의 프로젝트 약속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하며, 실행 가능성, 적시 완료, 실제 성과 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.

○ 정부,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정치적 개입 방지 및 책임성 확보 위해 감독 강화²⁶⁾

- 엘리우드 오왈로(Eliud Owalo) 부비서실장은 정치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공 프로젝트 간섭 및 부실 관리 금지를 경고하며, 부정 조달 또는 공사 지연에 연루된 경우 블랙리스트 등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.
- 일부 정치인들이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약자로 위장한 사례가 있으며, 이는 프로젝트 책임성과 사업 수행을 저해한다고 지적함.
- 오왈로는 정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신뢰성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며, 각 기관은 실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받았다고 강조했음.
-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면서, 모든 공공 투자가 실질적 개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음.

○ 케냐, 아프리카 6위 경제국으로 도약 — 루토 대통령, 재정 건전성과 회복력 강조²⁷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케냐 경제가 국제통화기금(IMF) 확인을 통해 에티오피아와

26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10/owalo-warns-politicians-against-interfering-with-public-projects/>

27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ruto-says-kenyas-economy-among-africas-top-6/>

앙골라를 제치고 아프리카 6위 경제국으로 도약했다고 발표했다.

- 대통령은 이러한 성장을 신의 은총, 재정 건전성, 회복력 있는 거버넌스 덕분에 평가하며, 인플레이션 9.6%에서 4.6%로 하락, 케냐 실링-달러 환율 165에서 128로 개선되는 등 주요 경제지표 향상을 언급했음.
- 외환보유액은 2022년 USD 57억에서 USD 120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, 기존 달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안정시켰음.
- 그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케냐가 채무불이행을 피하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한 점이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정책 개혁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Kisumu Bypass Dualling Road Project²⁸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(KeNHA).
- (도 급 사) 아직 공개되지 않음(현재 타당성 조사 및 준비 단계)
- (사 업 비) 확정된 계약 문서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,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임
- (편 당) 혼합금융 구조-지역(EAC) 재원 및 PPP 모델 포함
(케냐-우간다 고속도로 회랑 업그레이드의 일환)
- (사업내용)
 - 본 사업은 다국적 케냐-우간다 고속도로 회랑의 일환으로 키수무 바이패스(Kisumu Bypass) 구간을 단일차로에서 복선차로로 확장·개선하는 것을 포함함.
 -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이 NEPAD 인프라 사업준비기금을 통해 지원한 타당성조사 결과,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, 조사 내용에는 키수무 바이패스 복선화, Kimaeti-Lwakhakha 구간 도로 개선, 국경검문소 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.
- (추진현황)
 - 2025년 10월: 동아프리카공동체(East African Community),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캄팔라(Kampala) 시장 의견 청취 회의에서 타당성조사를 공식 승인하였음. 케냐 측에서는 - 키수무 바이패스 복선화가 핵심 성과물로 지정됨.
 - 케냐도로청(KeNHA)은 키수무-부시아(Kisumu-Busia) 회랑 구간의 유지보수 및 예비 공사를 시작했으며, 서부 회랑 업그레이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.

○ (주요상황)

- 키수무 바이패스 복선화는 키수무 - 부시아 구간을 우간다와 연결하는 다국적 고속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, “투자 준비 완료” 상태로 평가됨.
-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과 NEPAD 인프라사업준비기금(NEPAD-IPPF)이 지원한 타당성조사는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, PPP 및 혼합금융 구조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음.
- 업그레이드에는 단순 복선화뿐만 아니라 회랑 기반시설 강화, 국경검문소 OSBP, 지역 연결성 개선 등도 포함되어, 무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.

28) <https://www.eac.int/press-releases/150-infrastructure/3449-kenya-uganda-expressway-feasibility-marks-leap-for-northern-corridor-upgrade>

② Construction of Kwa Jomvu-Mariakani Road (A109-Mombasa)²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(KeNHA).
- (도 급 사) 중국 도시건설그룹(China City Construction Group/ Third Engineering Bureau) – Lot 2 (Kwa Jomvu–Mariakani 구간) 담당 보고됨
- (사 업 비) 약 KES 104억(≈ €1억 4,000만) 규모 - 글로벌 게이트웨이(Global Gateway) 사업의 일환으로 Kwa Jomvu–Mariakani 30.4 km 구간 업그레이드에 투입될 예정임.
- (편 당) 다자간 금융: 유럽투자은행(EIB) 대출: 약 €5,000만 / KfW 대출: 약 €5,000만 / EU 보조금: 약 €2,000만 / 케냐 정부 분담금: 약 €2,000만
- (사업내용)
 - 업그레이드 대상 구간: A109 고속도로(Kwa Jomvu 교차로~Mariakani 검량소) 약 30.4 km
 - 사업 범위: 기존 2차로 단일차선을 4차로 복선차로로 확장(도시 구간 일부는 6차로) / 서비스 차선, 등판 차선, 보도교, 보행자 전용 차선, 현대식 배수시설, 화물차 주차 공간 포함
 - 전략적 의의: 북부 회랑 교통망의 일부로, 몸바사 항구에서 케냐 내륙 및 인접국으로의 화물 이동 촉진
- (추진현황)
 - 2025년 10월 기준, 몸바사~Kwa Jomvu 구간(Phase 1) 95.45% 완료, Kwa Jomvu–Mariakani 구간(Phase 2) 약 35% 완료
 -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영향 대상자 보상이 진행 중이며, 보상금은 국가토지위원회(National Land Commission)에 지급되었고, 2025년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.
 - 자금 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공사는, 정부가 2025년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한 이후 재개되었음.

○ (주요상황)

- 본 사업은 2025년 2월 27일, EU-케냐 글로벌 게이트웨이(Global Gateway) 사업으로 공식 착수되었음.
- 업그레이드는 일일 약 2만 대 차량 이용, 이동 시간 단축, 안전성 향상, 항구를 통한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토지 보상 문제 및 시공사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, 2025년 말 기준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공사가 진행 중임.

29) <https://governance.co.ke/kwa-jomvu-mariakani-road-a109-mombasa/>

③ Maai Mahiu-Suswa Road Project³⁰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(KeNHA).
- (도 급 사)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-타당성 조사 및 준비 단계 유지
- (사 업 비) 약 KES 600억(≈ USD 4억 5,000만)으로 추정
Maai Mahiu~Suswa 구간 약 41 km 재건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.
- (편 당) 연료세 도로 유지보수 기금(fuel-levy road maintenance fund) 및 예산 배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예상되며, 외부 자원 또는 PPP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.
- (사업내용)
 - Maai Mahiu-Suswa 도로는 나이로비 방향의 리프트밸리(Rift Valley) 절벽 구간의 A8 회랑 약 41 km를 포함함.
 - 업그레이드 목표: 도로 확장, 경사 및 정렬 개선, 서비스 차선 설치, 현대식 배수시설 구축, 반복적인 산사태와 홍수에 대한 도로 내구성 강화
 - 전략적 가치: 기존 나이로비-Maai Mahiu 도로 혼잡 완화, 관광 지원, SGR(표준궤철도) 및 내륙 지역과의 교통 연계 강화
- (추진현황)
 - 2024년 9월: 국회 문서에서 Maai Mahiu-Suswa 도로가 차로 폭이 좁고 대체 경로가 없어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
 - 2024년 10월: 케냐국도청(KeNHA)이 Maai Mahiu-Suswa 검량소 및 인접 도로망 운영·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입찰 요청서(RFP)를 발행하며, 준비 단계 조달 활동을 알렸음.
 - 2025년 6월: 인프라 목록에서 Maai Mahiu-Suswa 도로 업그레이드가 주요 예정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, 41 km 구간 범위 및 재설계·재건 계획이 명시되었음.

○ (주요상황)

- 본 도로 업그레이드는 혼잡한 Nairobi - Maai Mahiu 절벽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한 우선 사업으로 공식 계획되었으며, 인접 다단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할 예정
- 검량소 및 인접 도로망 관련 공사에 대한 입찰 활동 진행 중으로, KeNHA가 본격적인 공사 착수 준비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줌.
-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, 자원 조달 방식, 공사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,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 중에 있음.

30) https://kenha.co.ke/wp-content/uploads/2024/10/KeNHA-2823-2024_-RFP-FOR-Gilgil-Maai-Mahiu-Suswa_-29-10-2024.pdf

④ Kiambu Road to Thika Road Dual Carriageway Project³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케냐 국도청(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, KeNHA)
- (도 급 사) 아직 시공사 선정되지 않음. 관련 회랑 업그레이드 입찰은 2025년 7월에 취소됨.
- (사 업 비) 초기 추정 금액: 약 USD 2억 5,000만~3억(공식적으로 공개된 확정 금액 없음)
- (편 당) 중국수출입은행(EXIM)의 금융 지원 약속은 언급되었으나, 상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음.

■ (사업내용)

- 업그레이드 범위: 기존 2차로 단일차로를 4차로 복선차로로 확장, 양쪽에 2차로 서비스 도로 설치, 보행자 시설, 다수의 신규 교차로 및 교량 건설(예: Muthaiga Golf Club 지선, Kirigiti 교차로), 분기 도로 업그레이드, Kiambu Road와 Thika Road 연결 도로 포함
- 전략적 의의: 본 회랑은 나이로비와 Kiambu County 간 교통 혼잡 완화, 접근성 향상의 핵심 요소임

■ (추진현황)

- 2025년 7월: KeNHA는 Pangani-Muthaiga-Kiambu-Ndumburi(B32) 회랑 업그레이드 국제 입찰을 취소하였으며, 구체적 사유는 명시되지 않아 프로젝트의 즉각적 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래됨.
- 2025년 8월: 상원의원들이 KeNHA를 상대로 입찰 자격 기준(중국 기업에 한정) 관련 조사 착수, 현지 시공사 배제 및 조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.
- 사전 자격심사 공고(2025년 7월)에는 사업 범위(복선도로 업그레이드, 교차로, 보도교, 서비스 차선)와 입찰자에 대한 엄격한 재무 기준(최소 매출 USD 2억 5,000만)이 명시됨.

○ (주요상황)

- 본 업그레이드는 나이로비 수도권의 도시 교통·혼잡 완화 전략과 Kiambu 지역의 교통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
- 조달의 갑작스런 취소는 언론과 국회 감독의 주목을 받았으며, 거버넌스, 투명성, 현지화 문제를 부각시켰음.
- 계약 수주, 재원 확정 및 공사 착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, 새로운 조달 전략 또는 계약 구조가 확정될 때까지 프로젝트는 정체 상태에 있음.

31) http://directory.buildmartafrika.com/detail-news.php?NEWS_ID=1174&PAGE_ID=7